

초여름 자연 속 '낭만 영화제'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6월 3일 개막식 시작으로 4~6일·11~13일 개최 일정 확정

초여름의 자연 속 낭만을 선물하는 ‘무주산골영화제’가 2021년 제9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9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부터 6일까지(4일간),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3일간) 총 2주에 걸쳐 주말에 개최된다.

지난 2020년, ‘무관객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 이어 ‘시즌 2 : 무주 상영회’까지 개최하며 새로운 형태의 대체불가 낭만 영화제를 입증했던 ‘무주산골영화제’가 2021년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에는 영화제 기간을 기존의 5일에 7일로 확대,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총 2주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운영 방식으로 또 한 번 초여름 자연 속에서 만나는 낭만 영화제를 기대케 한다.

무주산골영화제가 이처럼 올해 영화제의 개최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결정한 것은 자연 친화적이고 야외 프로그램에 특화된 무주산골영화제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관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관객들의 동선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영화제 전 기간 동안 사전 유료 예약제를 도입하여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적정 인원의 관객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올해 1월부터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 진행 중인 정기 영화 해설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영화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 중에는 무주군의 어린이 및 가족 전문 프로그램 ‘키즈스테이지’와 ‘무주군민을 위한 야외 무료 상영회’를 기획하는 등 안전 및 방역 규정을 준수하며 무주산골영화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계속 선보이며 2022년 곧 10회를 앞둔 무주산골영화제와 무주군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며 내실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 속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요즘, 무주산골영화



초여름의 자연 속 낭만을 선물하는 ‘무주산골영화제’가 2021년 제9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자연의 만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전한 방안을 모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의 새로운 형식의 관객 참여 방법 안내 사항들은 추후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들을 통해 계속해서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의 한국장편영화경쟁 부문인 ‘창썹’ 색션의 출품 공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창썹’ 색션은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한국 독립영화들을 엄선해 상영하는 ‘무주산골영화제’를 대표하는 경쟁 부문으로 뉴비전상(대상), 감독상, 영화평론가상, 무주관객상 등의 시상 내역에 따라 총 2,0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진다. <남매의 여름밤>(2020 뉴비전상/윤단비 감독), <증

발>(2020 나눔상/김성민 감독), <에듀케이션>(2020 영화평론가상/김덕중 감독), <김군>(2019 무주관객상/강상우 감독), <최 많은 소녀>(2018 뉴비전상/김의석 감독), <살아남은 아이>(2018 무주관객상/신동석 감독), <한여름의 판타지아>(2015 뉴비전상, 전북영화비평포럼상/장건재 감독) 등 수많은 경쟁부문 상영작들이 영화제 이후 정식 개봉되며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창썹’ 색션 출품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mjff.or.kr)에 안내된 형식으로 출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및 사무국 프로그래밍(063-8252-6401/mjuffilmfest@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박물관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대 박물관, 문체부 인력지원 사업 선정

학예·교육·예비 학예 인력 등 3개 부문

전주대 박물관(관장 김건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에서 진행하는 박물관 인력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박물관 학예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예인력, 교육인력 및 예비 학예인력 등 총 3개 부문이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대학박물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의 현장 능력을 강화

해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주대 박물관은 이 사업을 통해 박물관 학예연구사를 양성함과 동시에 박물관 특별전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체험교육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현수 학예연구관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전시를 진행하고 지역의 중심 박물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찾아가는 미술관 ‘생활의 축적’ 전시

한국전통문화전당·도립미술관, 3월 7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서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과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이 오는 3월 7일까지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생활의 축적’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전라북도미술관의 소장품 중 일부를 엄선해 선보이는 일명 ‘찾아가는 미술관’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

‘생활의 축적’은 일상과 사물이 마주할 때 스며드는 교감이 정교히 쌓여 대상과 가장 가까이 닿는 공예의 미적 실천을 담아내기 위해 기획됐다.

음악오행의 조화를 다양한 형태의 완성미로 재구성하여 작품 세계를 창출하는 ▲김종연의 <정답>, ▲태극 사상의 천(天), 지(地), 인(人) 개념을 주제로 시간의 흐름을 구상한 임옥수의 <만추> 등 우리의 사상과 생활이 담긴 다채로운 공예작품 11점이 전시된다. 특히, 겨레의 미의식과 정감이 자연스럽게 노출된 ▲민화를 이용한 장영애의 <빛 가운데>와 ▲흑단과 과목을 소재로 한 김윤환의 <나의 의자> 등의 작품은 공예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등 작품마다 담겨있는 기술을 관람함과 동시에 한국화와 공예의 어울림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전시는 현장 관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으니 유튜브 검색창에 ‘전주공예품전시관’이나 ‘생활의 축적’을 검색하면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가장 가까이 닿고 있는 밀접한 공예에 대해 소개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예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누리집(www.jonjucraft.or.kr)을 방문하시거나 공예산업팀(063-282-8886)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군산시립합창단 제9회 브런치 콘서트 19일 개최

최고의 합창음악을 지향하는 군산시립합창단이 새해 첫 시작을 알리는 연주회를 개최한다.

군산시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9회 브런치 콘서트 ‘시와 합창, 하나 됨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립합창단 제8회 김경진 상임 지휘자의 연주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군산시 유튜브, 군산시립합창단 페이스북)를 통한 비대면 영상 콘서트로 진행되며, 창작 문화와 음악을 통해 다양한 가사와 선율이 더해져 창작 합창, 여성독창, 남성독창 등으로 합창 음악을 사랑하는 관객들에게 따뜻한 음악선물을 선사할 것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제5회 특별기획전

5월 30일까지 ‘수탈의 기억 V - 글과 그림으로 본 항일과 반역’ 주제

군산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4개월간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에서 다섯 번째 특별기획전인 ‘수탈의 기억 V - 글과 그림으로 본 항일과 반역’ 전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줄의 글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평생 동안 그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에 남긴 항일 애국지사들과 반민족 행위자들의 서화를 중심으로 작품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다.

주요전시작품으로는 경술국치의 분을 못이겨 자결한 매천 황현 선생의 유묵, 민족대표

33인 중 1인인 오세창 선생의 서예, 대마도에 잡혀가 순국하신 최익현 선생의 일생도 8곡 병풍과 편지, 일본 황족으로 태어났으나 황태자이인과 부부로 맺어지면서 한국인이 된 이방자 여사의 8곡 병풍 등 50여 점이 최초로 공개된다.

한편, 지난해 6월 박물관 등록을 마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은 문화체육관광부주관 국가문화유산 DB화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말까지 3,000여점의 소장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등록으로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남현봉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